

법무매거진

대한변협, 법무부에 변시 합격자 수 감축 강력 요청



- 이종엽 변협 협회장, 박범계 법무부장관 예방해 담화 나눠
- 국선변호사 변협 이관 문제 등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이종엽 변협 협회장은 지난 3월 11일 정부과천종합청사를 방문해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예방하고 담화를 나눴다.

이날 이종엽 협회장은 박범계 장관에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에 대한 의견을 적극 전달했다. 이종엽 협회장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법전원도입 당시 법무부가 세운 기준인 법전원 정원 대비 75%인 1500명이어야 하는데 지난해 합격자는 1758명이었다.”며 “올해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1200명으로 배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피력했다.

현재 법률시장은 급격하게 얼어붙은 상황이다. 연도별 사건 경우 건수(서울회 기준)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반해 변시 합격자 수는 2018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선변호인 관련 업무의 변협 이관도 함께



요청했다. 현재 국선변호사 운영주체는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 다른 분야에 산재해 있다. 이에 국민이 제도를 이해하고 이용하는데 큰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변협은 국선변호인 운영주체가 변협으로 일원화된다면 중복 업무 수행에 따른 안전비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날 담화에서는 법조계 현황과 문제점 등도 함께 논의했다.

(출처/대한변협신문)